

잇단 캠퍼스 성범죄... “알아야 막는다”

대학들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과평가 반영 교원 참여 늘려

전남대 스마트폰 앱 강좌 도입

“성폭력 문제는 무의식·무지·관행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교원 참가 독려에 어려움이 있어 학과평가와 연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수율이 증가하고 성폭력 문제 제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남대 최정기 인권센터장이 평가한 폭력예방교육의 효과다.

최근 대학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와 스마트폰 단체대화방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예방교육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에서도 폭력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전남대의 이수를 학과평가 반영, 광주교대의 교생실습 사전연수 커리큘럼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교육대학교는 현장교육 실습생 사전연수시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

■광주·전남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전남대	교육 이수율 학과평가 반영
광주교대	실습생 사전연수 때 교육 이수 필수화

목포대	신입생 OT 때 집중 교육 총학생회 ‘또래 상담자(서포터즈)’ 시범운영
-----	--



도록 했다. 예전에는 실습 주의사항이나 필요한 지식을 전달했는데, 작년부터 폭력예방교육을 추가했다. 실습생들은 사전연수를 이수하지 않으면 학점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폭력예방교육은 필수가 됐다.

교직원들은 연2회 2시간 집합교육과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하고 있다. 집합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성폭력·성희롱, 성매매·가정폭력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수업이나 세미나 등으로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교수들은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받은 뒤 수료증을 출력해 제출해야 한

다. 그 결과 교직원 대부분이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게 됐다.

전남대학교는 교원 예방교육 이수율을 학과평가 등급조정 항목에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율 목표인 80%에 미달하는 학과는 평가결과에서 3점을 감점해 등급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학과평가에 반영한 결과, 교원 이수율은 성희롱 47%→91.2%, 성매매 42%→89.9%, 성폭력 42%→89.5%, 가정폭력 39%→88.4%로 급증했다.

전남대는 많은 구성원이 보다 쉽고 실제

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 온라인을 비롯한 모바일 교육을 활성화했다. 특히 스마트폰 앱에서 교육이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 유도과 간편함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

20여 년 전부터 폭력예방교육을 해온 목포대학교는 강제적인 성범죄로부터 ‘절대안전’의 캠퍼스를 만들고 있다. 목포대는 교수·직원·학생 등 전 구성원의 교육 참여율 100%가 목표다. 시간강사·조교를 포함한 교원은 연 4회 열리는 교수회의와 신입교수 오리엔테이션, 교수 하계연수 등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있다. 직원은 직장교육 및 직원 하계연수 등을 활용해 교육한다. 학생의 경우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때 전문강사를 초빙해 집중 교육하고 있다. 재학생은 학생회 행사 및 학과별 자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총학생회를 주축으로 동등한 학생의 눈높이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하는 ‘또래 상담자(서포터즈)’를 시범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C형 간염 6월부터 전수 감시

진단 병원 보건소 신고 의무화

오는 6월부터 ‘C형 간염’에 대해 전수 감시한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C형 간염의 집단 발병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표본감시만 하는 C형 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인 제3군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C형 간염을 진단한 의료기관은 예외 없이 해당 보건소에 곧바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이렇게 각 지역보건소에 신고된 C형 간염 발병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유달리 많을 때는 즉각 역학조사에 착수해 발병원인을 분석해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다.

보건당국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1~5군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지정 감염병’으로 정해 표

본감시를 할 수 있다.

그동안 C형 간염은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돼 표본감시 의료기관만 해당 환자를 보고했으며, 역학조사도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진행했다. 표본감시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가 없었고 집단발병이 아닌 이상 보건당국이 나서서 역학조사를 할 수도 없었다.

이 때문에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아니면 C형 간염 환자를 인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기 일쑤였다.

2016년 기준 C형간염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186곳에 불과하다.

C형간염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데다 치료도 쉽지 않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C형 간염의 국내 유병률은 1% 미만이지만 한 번 감염되면 대부분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만성 C형간염 환자의 30%는 20년 이내에 간경변·간암으로 증상이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장애인 임신부 검진비 지원

임신 20주 이상 100만원

광주시 서구는 장애를 가진 임신부에 대해 산전(産前) 검진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임신부는 비장애 임신부와 비교해 산전 검사 종류, 횟수 추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서구가 지원에 나선 배경이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20주 이상의 장애인 임신부다. 지원 규모는 장애등급에 구분없이 산전 검진비 100만원이다. 서구는 세워진 예산 8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예산

을 세워 지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임신부 명의의 통장사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임신 주수 확인용 증빙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출산장려팀(062-350-41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산전검진비 지원이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임신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아이 건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장애인 임신부가 안정적인 여건 아래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앞으로는 임신부 공무원의 야간·휴일 근무가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임신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

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이를 내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주기로 했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한 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축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 동구 금연클리닉에서 금연에 성공한 주민들이 최근 축하행사를 갖고 평생금연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광주 동구 312명 금연 성공...“건강한 삶 지금부터”

광주 동구주민 312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금연클리닉을 통해서다.

광주시 동구는 자체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 동구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312명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동구는 최근 금연 성공자들의 축하행사를 열어 이들의 금연성공을 축하했다. 이들도 평생금연을 다짐하는 서약을 통해 금연의지를 다졌다.

금연에 성공한 김성일(72·동구 서남동)

씨는 “매해 금연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런데 동구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금연 실천과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구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금연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니코틴 보조제(패치·껌·사탕 등) 제공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금연 성공자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변촌마을)
- 대지, 계획관리지역
- 마을회관 바로 옆, 전망최고
- 1260 - 1번지 - 114평
- 1260 - 2 번지 - 90평
- 1376 - 2번지 - 67평
- 1351 - 4번지 - 182평
- 1352번지 - 58평
- 1353번지 - 69평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평당 50만원 (경매물건 50만원씩 낙찰됨)

나주, 다도면 임야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기타 모든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평당 80만원)

광양시, 근린상가

- 전남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건물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성숙 발전지역
- 중동 라희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나주, 남평읍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4월 철거 예정)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25억 (평당 40만원)

회사 사정상, 싸고 좋은물건, 급매 합니다.

주인직매 H. 010-3605-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전화요망